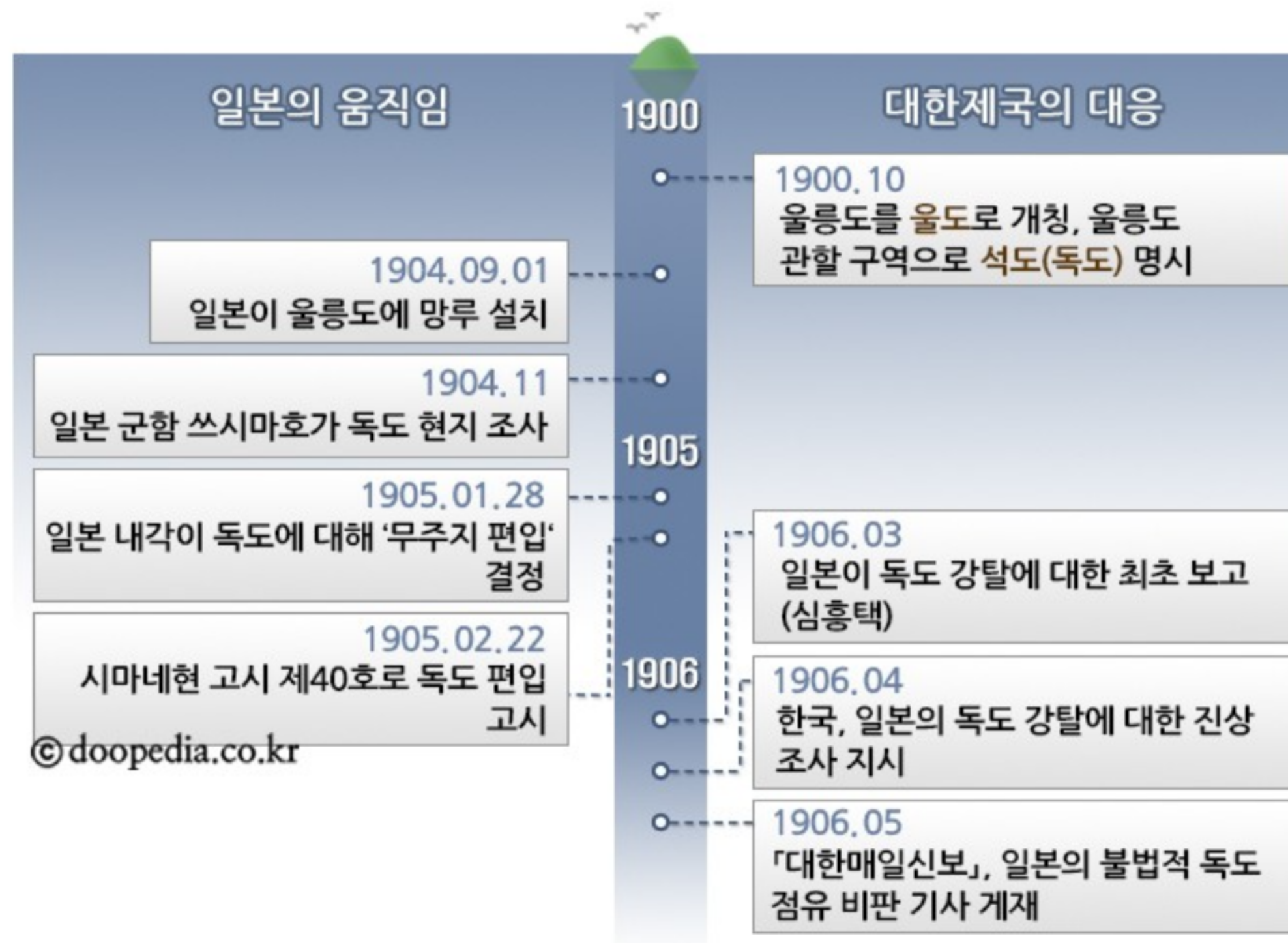


일본의 독도 강탈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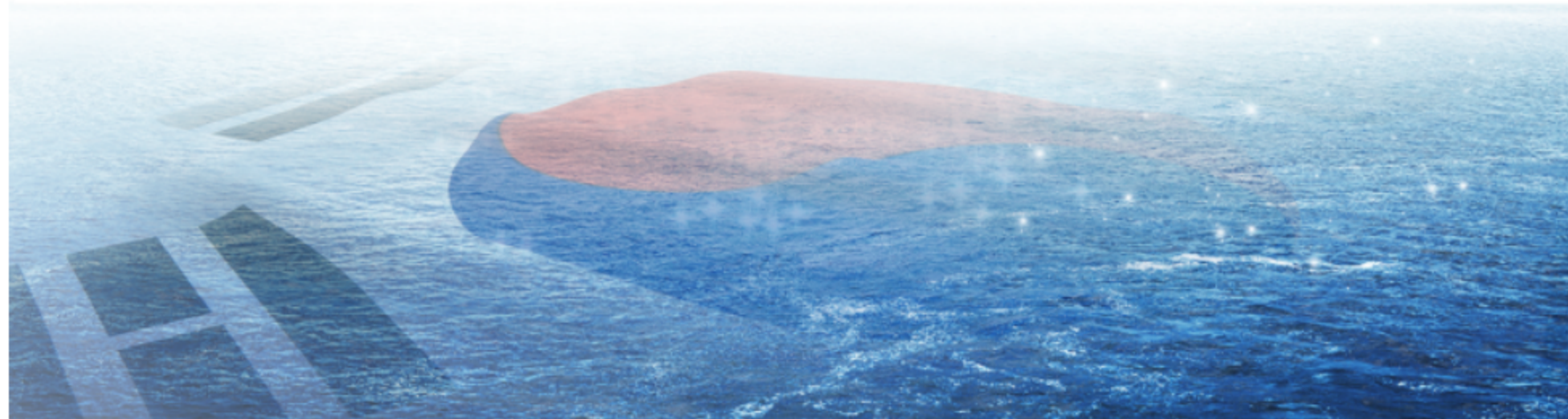


한편,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을 통하여 독도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고 같은해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개칭하고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이후 계속해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54년 8월에 등대를 건설하고, 1982년에 독도 주변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하고, 1997년 11월에는 주부두와 간이부두, 진입로를 갖춘 독도 접안시설을 갖추는 등 실효적인 지배장치를 강화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해마다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일 간의 영토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어 시민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조례안 가결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일반인의 독도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

일본 정부가 우리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 하면서, 우리나라와 빚고 있는 갈등을 말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요약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이다. 이후 2월 22일 시마네현(縣)은 현(縣) 고시 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 사실을 1906년 4월 대한제국에 통보하였다. 이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SCAPIN(연합국 최고상부지령) 677호로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고 이를 한국에 반환시켰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1952년 1월 18일에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통칭 평화선)'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다. 이에 일본은 열흘 뒤인 1952년 1월 28일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호칭 다케시마(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이것이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이다. 그 뒤 1951~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독도는 두 나라 간의 논쟁 대상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

1. 지리적 근거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일본 오키섬에서는 157.5km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역사적 근거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신라에 귀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는 등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취하고 있던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3. 국제법상 근거

1946년 국제법상 연합국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는 독도의 영유권에 대하여 한국 영토로 판정, 독도를 주한미군정에 반환하였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독도를 즉각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로 통치하면서 1948년 12월 12일 국제연합으로부터 국제사회의 합법적 주권국가로 승인받아 당시의 영토(독도 포함)에 대한 통치권을 공인받았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독도의 날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매년 10월 25일이다.

날짜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로, 10월 25일이다. 독도의 날 제정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해 이뤄졌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90km 해상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이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8월 27일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의 공동 주최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의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여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28일 당시 국토해양부는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동도의 봉우리를 우산봉으로, 서도의 봉우리를 대한봉이라 명명하였고, 바위로 분류되던 것은 탕건봉으로 재분류해 독도는 3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 되었다.

독도 둘러보기



국내의 유일한 범선 코리아나를 타고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킨 이사부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했다. 코리아나호(선장 정채호, 136톤, 정원 72명)는 정박지가 여수인데, 일본 나가사키 범선 축제를 14번째 초청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국내 유일한 범선이다. 위의 사진은 독도 주변의 범선들이다.

독도 둘러보기



독도 둘러보기

앞 사진은 범선 코리아나호에서 바라 본 독도 전경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삼척시 주관으로 이 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를 답사했다. 20일 독도 방문을 마치고 저녁에 삼척으로 귀향하다가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났다. 다시 울릉도로 들어가 3일간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울릉도 곳곳을 돌아봤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필자는 섬탐험가 자격으로 경북도청의 초청을 받아 독도에서 1박을 하며 특강을 하는 행운을 누린 적이 있다. 2012년 10월 28일 울릉도 사동항에서 177톤급 독도평화호는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과 패션모델들과 관계자 등 총 80여명을 태우고 오전 8시 독도를 향해 출발했다. 2시간 후에 독도 물양장에 상륙하여 이영희 한복 패션쇼를 감상했다.

이 워크숍 이전에 TV에서나 접했던 패션쇼를 독도에서 보는 맛은 색달랐다. 패션쇼 주제는 '바람의 옷 독도를 품다! 독도사랑 한복 패션쇼'였다. 디자이너 이영희 선생은 한국의 땅 독도를 배경으로 우리의 역사를 상징하는 삼국시대 왕과 왕비 등 조상들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복원했다. 최초로 독도에서 시도된 이번 행사는 우리의 땅 독도와 한복의 우아함을 새롭게 세계에 알리는 기회였다.

독도 둘러보기



2012년에 있었던 '바람의 옷 독도를 품다! 독도사랑 한복 패션쇼'

이영희 한복 디자이너는 "우긴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국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고 싶어 패션쇼를 기획했다. 독도 현지에서 우리 옷을 입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가슴이 뿌듯하고 자긍심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독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모델들의 옷자락이 보는 이들을 압도시켰다. 독도와 한복을 연관 짓는다면 둘 다 '우리 것'이라는 점이다. 저녁에는 독도 주민숙소에서 경북도와 동해안 5개시 군 해양수산과장 등 해양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있었다.

독도와 전라도의 인연

울릉도와 독도는 전라남도 특히 거문도 지역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의 먼 바다에 있는 삼산면 어부들을 소재로 '남녘 어부들이 개척한 뱃길'의 역사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또 최근에 호남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1880년대 울릉도 개척 당시 원주민 80%는 전라도 출신이었고 독도라는 섬 이름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부여한 지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종 때인 1882년 이규원 울릉도 검찰사가 고종에게 올리는 보고서에 울릉도 전체 인구 141명 가운데 전라도 사람이 115명, 강원도 14명, 경상도 11명, 경기도 1명으로 기록했다. 전라도 출신의 개척민 가운데 각 지역별로는 흥양(현재 전남 고흥) 3도(죽도, 손죽도, 거문도) 출신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흥해(여수) 초도 33명, 낙안(순천) 21명이었다.

논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나오는 초도 사람들은 먼 바다 한가운데 살았지만 험한 바다를 개척하는 개척자 정신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수지방에는 노동요 술비소리가 전해온다. 이 소리는 여수의 거문도와 초도 어부들이 어구용 밧줄을 꼬는 작업을 하거나 배를 부릴 때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는 노래이다. 노랫말이 힘차고 가락 또한 여간 역동적이지 않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흥에 취한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멀리 울릉도와 독도의 뱃길을 개척하고 고기를 잡았던 숨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독도와 전라도의 인연

에헤야 솔비아/ 어기영차 뱃길이야

울고 간다 울릉도야/ 알고 간다 아랫녘아

(중략) 돛을 달고 노니다가/ 울릉도로 향해 가면

고향생각 간절하다 울릉도를 가서 보면/ 에헤야 솔비아

좋은 나무 탐진 미역/ 구석구석 가득 찼네

독도와 전라도의 인연



아무튼 뱃길 개척의 역사는 흥미롭기만 하다. 그 먼 곳까지 가는 데는 풍향을 이용하였는데, 겨울철은 셋바람이나 높새바람이 불어 배를 밀어내므로 그때는 피하고, 하늬바람이나 마파람이 부는 봄철에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항해코스는 지금도 많이 이용하는 손죽도와 소리도를 거쳐, 경상남도 욕지도와 부산의 절영도를 통해서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도 동굴 전경

울릉도와 독도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어류를 포함한 해산물이 풍부했다. 특히 울릉도는 수목도 울창하여 질 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됐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한편으로 집을 지을 목재도 실어왔던 것이다. 전해오는 말로는 이때 향나무도 함께 베어왔는데 제수용품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문헌을 보면 조선은 섬을 비워두는 공도(空島)정책을 폈다. 태종과 세종임금 때로 왜구의 침탈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어간에 초도와 거문도 어부들이 어장을 개척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장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장보고와 이순신의 후예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독도를 지켜 온 독도 지킴이며 이장이었던 김성도 씨가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제 독도에는 김씨의 부인인 제주 출신 김신열 씨만 남게 되었다. 태풍이 몰아치면서 거센 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집을 집어삼켜서 한때 울릉도에 나가 살았지만 지난 2006년 정부지원금과 국민성금으로 지은 보금자리에 다시 돌아왔다.